

군산시, AI 방역 총력 대응 나서

긴급 방역대책 간부회의... 방역 강화 대책 논의·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일괄 수매 후 도태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취약지역 일제소독과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일괄 수매 후 도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방역 강화 요구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한준수 부시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시에서는 회의를 통해 ▲거점소독 공무원 근무자 보강 ▲시청사 내 발판 소독소 설치 등의 방역 강화 대책들이 논의되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실시에 들어갔으며, 12일부터 관내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17개소에 시청공무원을 투입하여 24시간(1일 3교대) 동안 출·퇴근 농장주, 사료운반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의 강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AI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만큼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장주들의 양심적인 협조와 자가소비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시민들의 의심 신고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방역활동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1일까지 관내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수매 대상인 22,087수를 모두 수매하여 도태작업을 완료했으며, AI 보호지역(3km) 및 관리지역(10km) 농가에 대해 정기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취약지역 일제소독과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일괄 수매 후 도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 명예농업시장단, 새정부 대응 정책간담회

익산시는 12일 오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장과 농업분야 정책자문위원, 미래농정국장 및 5개부서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농정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공약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자문을 했다.

미래농정국은 새 정부의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기조인 농업·농촌 7대 정책에 맞춰 농업회의소 설치 및 농업 재해대책반 강화, 친환경 생태농업

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익산 RICE-10 가공산업 육성, 품목별 공선출한 연합조직 육성 등 11개의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농정거버넌스 기구인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과 행정과 농업이 상생하는 협력사업 발굴 추진사항, 농촌 재능 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사업 등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자문을 구했다.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장은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군산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5일간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산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체 총 353개소가 해당된다.

조사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 수,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등 15가지 항목이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과 함께 인터넷 조사(ims.ecensus.go.kr)를 병행한다. /군산=장현 기자

다수확 '유전자가위 토마토' 원천기술 개발

원광대 박순주 교수 연구팀-미국 'Cold Spring Harbor Lab.' 공동연구

원광대학교 기초자연과학연구소는 박순주(생명과학부·사진) 교수 연구팀과 미국 Cold Spring Harbor Lab.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토마토 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유전자원인 고부가가치 농생명체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반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Cell (IF28.710) 6월호에 '토마토 교화 유전자의 negative epistasis로 토마토의 수확성 밝히다(Bypassing negative epistasis from a domestication gene to improve tomato yield)'를 제목으로 실렸으며, 특히 연구 관련 사진이 'Cell' 표지사진으로 선정돼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법은 토마토의 발달형질을 결정하는 MADS-box 유전자들을 편집해 유전자 상호작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변

이와 표현형질 간의 유전적 연관 관계를 활용해 잡종강세를 유발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구결과가 종자회사에 다수확성 종자 생산의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돼 글로벌 종자회사 및 과학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구로 열매가 큰 토마토 품종들의 형질 중에 열매 자투의 탈리층 제거와 큰 꽃받침 형질의 유전적 비밀을 밝히고, 육종가들이 꽃대 가지 억제 유전자원을 활용함에 따라 2와 3의 유전형질 교배조합으로 꽃대 가지와 꽃 발생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한 점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잡종강세의 초우성 유전모델로 다수확성 잡종강세 유전자형을 개발하고,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돌연변이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점도 연구 성과로 꼽혔다.

박순주 교수는 "생물체의 지도라 불리는 DNA를 원하는 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CRISPR)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농생명 분야에서 차세대 농생명기술로 유전자 편집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 기술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활용법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단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진 탁월한 연구결과"라며, "지속적인 농생명 R&D 지원이 안전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2차 교통사고 예방 FTX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경 익산역 지하차도 내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FTX(모의 훈련)를 실시했다.

최근 지하차도 내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처리를 하는 중 경찰관이 2차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FTX를 수행했다.

이날 모의훈련 현장은 2차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익산역 지하차도를 선정하고 생활안전과장, 교통순찰차 2대, 중앙지구대 순찰차 2대 등 총15명이 참여하였으며 교통사고 현장 출동 및 사고처리를 가정해 1킬로 전방에서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시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간여행마을을 관광명소화 추진' 주민설명회

군산시는 시의 대표관광지인 군산시간여행마을이 전국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12일 월명동 주민센터에서 월명동, 해신동 등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시간여행마을을 관광명소화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에서 추진 중인 ▲내항 전망타워 설치 ▲근대역사경관 문화빛거리 조성 ▲도시재생 선도시업 ▲박물관 벨트화지역 아크래장 등 10여개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군산시간

여행마을을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월명동의 한 주민은 "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구상을 청취할 수 있어서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근대역사가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함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서부보훈지청, 보훈처장 위문품 전달

전북서부보훈지청은 현충일 전후로 국가유공자 10여명에게 국가보훈처장 위문품(홍삼세트)을 직접 전달하고, 위로·격려했다. 앞으로 6월 한 달간 총 120여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우실 지청장은 이번 위문을 통해 고령이나 생계곤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급 중상이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100세 이상 유족 등 10여명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접수하고 감사와 격려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복지·의

료 서비스를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따뜻한 보훈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애우를 실천하고 있다.

위문품을 전달 받은 보훈가족 한분은 "국가에 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직접 찾아와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며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 또한 느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우실 지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다하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주택행정과, 경로식당 봉사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직원들은 12일 대명동 소재 군산경로식당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주택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14명이 35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국철민 주택행정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이어 배식과 설거지, 뒷정리까지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동안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하면서 어르신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국철민 주택행정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복합한 교육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